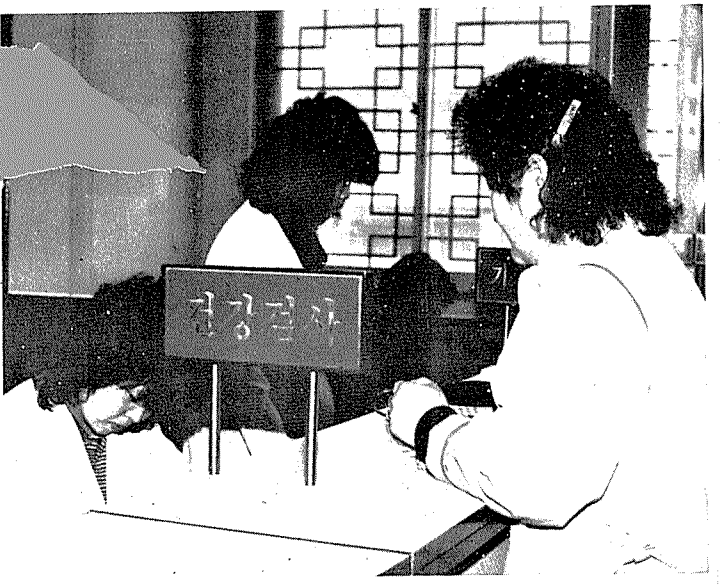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는 생활로

진료소 순회검진서

건강이란 것은 잃기는 쉽지만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다고들 한다. 또, 자신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병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생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배기자씨(50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는 몇해 전부터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신경쓸 일이 많을 때는 그 아픔이 가중되었다.

심장병



건강을 되찾았읍니다."

심장병을 발견, 투병 생활중인 배기자 씨

그러던 중 지난 3월 보건진료소장 함영자씨의 도움으로 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그녀는 심장병을 확진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병은 수술을 받아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절제, 식이요법 등이 필요했다.

장기간 동안의 그 투병생활을 자신의 인내와 주위의 관심으로 잘 지내오고 있는 그녀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분단의 아픔과 풍요의 기쁨이 함께 하는 철원평야

춘천에서 두시간반. 경기도 포천을 거쳐 다시 강원도 철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기자는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떤 느낌 때문에 한동안 침잠되어 있었다.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지역. 일일이 검문을 받아야 할 그곳. 길옆으로 펼쳐져 있을 지뢰밭, 항상 긴장상태로 있어야 할 곳, 멀리로 바라다 보일 또 한쪽의 조국땅, 북녘…….

이런 일련의 떠오름들이 조금은 생경스러우면서도 무엇이 우리를 분단시켜 놓았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나 슬프나 분단을 떠올려야 하도록 했는가하는 생각들이 분수처럼 솟아난다.

철원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끝간데 없이 펼쳐진 평야를 바라볼때 갑자기 가슴이 탁 트임을 느낀다. 말로만 듣던 곡창지대인 철원평야의 그 광활함과 여기저기 쌓여진 볏섬들이 무척이나 풍요로와 보였다.

분단과 철원의 풍요가 안겨주는 아픔과 기쁨이 교차되기를 여러번, 일행은 어느덧 민간인통제구역의 첫번째 검문소에 도착했다. 구역내에 살고

▶수술을 해서도 치료될 수 없는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배기자씨.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는 그곳에는 주민들의 출입증들이 나무에 매달려 스산히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차분한 미소로 일행을 맞은 배기자씨

다시 거기서 20여분, 차를 달렸을때 일행은 양지보건진료소장 함영자씨의 환영을 받았고, 다시 두번째 검문소를 통과했다.

배기자씨가 살고 있는 갈말읍 정연리는 양지리에서 20여분을 더 달려가야 했고, 물론 또 한번의 검문을 받아야 했다.

철원의 평야는 그곳까지 이어져 풍년의 너그러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었다.

일행이 배기자씨 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녀는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인지 방바닥은 이미 지펴진 불로 따뜻한 기운을 느끼도록 했다.

배기자씨는 농촌 주부들의 쾌활함보다는 차분한 모습으로 일행을 맞아주었다.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치료

－건강은 어떠세요?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수술을 해서 당장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그저 알고 조심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니,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평소 주민들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었던 함영자 양지보건진료소장은 건협 강원지부의 이동검진 소식이 무척 반가웠다고 한다.

살죠.』 배씨는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녀의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한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신경만 좀 많이 썼다 싶으면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또 아프곤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쉬고나면 괜찮아지곤 했어요. 아플 때마다 청심환 같은 약을 복용했었죠.

무슨 병이 있겠거니 했지만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볼 엄두도 내지 않았었어요.』

이동검진 한다는 연락에 솔깃

그런 그녀가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검사를 받게 된것은 양지보건진료소장 함영자씨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함소장님께서 이장님과 부녀회를 통해 건강검사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읍니다. 올해 3월이었죠.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저희 마을을 찾아와 건강검사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나 저희 가족 모두, 제가 평소에 아파했던 심장검사를 받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읍니다.』라고 배씨는 당시의 상황을 말한다.

한편, 양지보건진료소장 함영자씨는 『여러가지로 소외되어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의료혜택 역시 별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려해도 쉽게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제가 있는 진료소 역시 거리가 멀고 또 치료를 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죠.』라고 그 지역의 의료혜택 실정을 설명한다.

그녀는 또, 『저는 평소에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주민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반가웠읍니다.』라며 자신이 그녀의 관할구역인 정연리와 양지리, 이길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주위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는 배기자씨와 그녀에게는 건강에 관한한 선생님이랄 수 있는 함영자씨의 다정한 모습.

검사결과는 심장이상

함소장은 연락을 받은 즉시 건협에 홍보자료를 의뢰했고, 지역주민에게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이장과 부녀회를 통해 검사를 받도록 그 필요성을 계몽했다. 『이동검진차량이 나온 날 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죠. 저도 심장검사를 받았읍니다. 검사결과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 심장전문의을 찾아가보라는 것이었읍니다. 당뇨기도 약간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구요.』라며 배씨는 이어서 당시의 기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원래 건강이 안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쩌면 좋을지 몰랐읍니다. 당장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도 막막했었죠.』

한편, 당시 검사를 받은 주민의 검사결과표를 함께 받은 함영자소장은 그녀를 위해 큰 병원에서 심전도를 다시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배기자씨의 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결국 이분이 신경써야 하는 일들을 없애주고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이렇게 생각한 함소장은 그녀를 자주 만나면서 그녀와 가족의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을 귀찮을 정도(?)로 시켰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무척 뚱뚱했었거든요. 함소장님께서 살을 빼야 한다고 하셔서 식사도 절제하고 했더니 지금은 많이 체중이 줄었읍니다. 그후로 심장이 아픈 것도 많이 줄었구요.』라고 배씨는 말한다.

『체중이 감소되면서 심장에 대한 압박이 감소했기 때문에 심장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거죠. 그리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당뇨기도 이 체중감소와 식이요법에 의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읍니다.』라며 함소장은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되어 심장이나 당뇨가 심해졌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밝게 웃는다.

건강의 필요성 인식이 중요

『이곳 주민들은 지역적 상황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폭주를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래서 질병의 양상이 성인병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폭주를 금하도록 계몽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라고 말한 함소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암검사를 받아볼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자궁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예요.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점도 많아요. 이곳 생활에는 시간제한이 있는데다가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해서 당장 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조치가 어려우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 즉,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라고 덧붙인다. 한편, 배기자씨는 『이제 건강도 회복되어가고 또,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심전도를 찍을 수 있게 되어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읍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건협 강원지부와 함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10월 쯤 주민건강검사를 다시한번 해야겠다는 함소장과 농촌주부의 소박한 웃음을 보여주었던 배기자씨의 다정한 모습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기자의 마음 속엔 이곳 주민들의 건강은 이미 지켜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산 어디쯤에는 남방한계선이 보이고, 그 너머로 보면서도 갈 수 없는 우리의 땅이 조용히 어두워져가고 있었다. 〈이은희〉